

국내 기업이 부담을 덜고 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<보도내용 요약>

- 2026.5.19. 대한경제 「자율주행 메카 광주 ‘딜레마’...예산 86% 현대차車값 부담」 보도 관련입니다.
-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예산의 대부분이 차량 구매 및 개조에 투입되었으며, 데이터의 실질적인 과실을 현대차가 독점하기 쉬운 구조라고 보도했습니다.

<국토교통부 입장>

- 광주 자율주행 실증에 사용될 차량은 표준화와 기술탑재에 최적화된 국내 최초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(SDV)으로 아직 양산단계에 도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높습니다.
- SDV차량은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가 주요 목표인 이번 실증의 핵심 인프라로 일정 물량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차량제작에 많은 비중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
- 한편, 광주 자율주행 실증에서 확보하게 되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과실을 현대차가 독점하기 쉽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는 표준화 된 상태로 현대차와 스타트업 모두에게 공유되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역량 향상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.
- 이외에 전용 보험상품, 운송 플랫폼, 차고지 및 충전소, 차량정비소, 사무실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	책임자	과 장 임월시 (044-201-3847)
		담당자	사무관 조상우 (044-201-3852)
			주무관 김만호 (044-201-4147)
	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	책임자	과 장 강태석 (044-201-3835)
		담당자	사무관 이진우 (044-201-3820)
			주무관 이상준 (044-201-4783)